

한가위 성묘 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부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 도 자

“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63:3~4, 새번역)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앞서 가신 선조들을 기억하며 다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435장 다 같 이

1.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공동기도 다 같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 함께 한 소중한 기억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움이 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의 가르침이 저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서 주신 시간동안 ()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 간의 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서고, 다시 ()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과 ()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요한복음서 15:5~7() 인 도 자

⁵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⁶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⁷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숨 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인 도 자

미 우리 곁을 떠난 ()을 추모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묘를 하면 아름다운 산과 단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 있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한줌의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부르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하는 인생입니다(창3:19). 그렇다면 이 한줌의 흙인 내 인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1. 인생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5절)

인생에는 자랑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학업과 명예와 부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많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은 내 인생도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일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활히 여기셔서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 내 삶은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응답입니다(7절)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열매들로써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부모님께서 밤낮 부르짖으셨던 기도의 결과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 온 것 같지만 나는 누군가의 기도응답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부모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열매가 되도록 후손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나의 삶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대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게 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내 삶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모두가 흙 한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룬 것 같은 지금 나의 모든 열매맺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믿음의 부모님과 조상들의 기도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들의 기도응답으로써 현재를 사는 나는 내 자녀와 또 다른 세대의 열매맺음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와 미래세대는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찬 송 570장 다 같 이

1.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 하여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의기도 다 같 이

제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가족들이 즐겨 부르던 것이나, 잘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회 홈페이지 (www.yedarm.or.kr)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가정예배)

예담교회
www.yedarm.or.kr

02832 성북구 동소문로 47-23
대표 926-0691, Fax 923-6818